

# 학대·억압의 굴레 벗어나 새로운 꿈 향해 날아오르다

## 양육시설 학대 이겨내고 새 삶 찾은 고아소년

“아직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만난 A(여·20·대학교 2년)씨는 지난해 9월 취재진이 봤을 때보다 밝아 보였다.

빨간 코트에 구두를 신고 나온 A씨는 어느 20대처럼 생김새는 여대생의 모습이였다. A씨에게 지난 1년은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시기였다고 한다.

학대받은 사실을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양육시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움으로 임

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삶의 터전을 꾸리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시설에 살 때는 귀가하면 누구랑 만났나? 뭐했나? 등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다”면서 “이제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좋다”며 활짝 웃었다.

A씨는 다만 “지난해 9월 광주일보 보도를 통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이후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학대 당사자인 원장 등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양육시설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 당분간은 원장 등을 용서하

LH 도움에 임대아파트 마련

교환학생으로 서유럽 어학연수

통역봉사 참여 등 활발한 활동

외국기업 취업 꿈 펼치고 싶어

“내손 잡아준 광주일보 고마워”

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을 통해 광주 YWCA산하 양육시설인 ‘성빈여자’에 거주하면서 원장의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을 제보했

다. 광주일보 보도 후 시설 원장은 직부가 정지됐으며, 당사자들은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일보 보도 이후 양육시설에서 독립했으며, 딱한 사연을 전해들은 LH 후원으로 광주시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달간 서유럽 어학연수 일정을 소화하는 등 해외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서유럽을 둘러보며,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 갇혀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시설 내에 있을 땐 꿈이란 것 자체를 가지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다”면

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외국계 기업에 취직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자신의 첫 꿈을 전했다. 지금은 영어공부와 함께 올 초부터 모 국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통역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자신의 꿈을 쫓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A씨는 “광주일보 보도 덕분에 어두웠던 삶이 밝은 삶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세상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큰 고통 속에 죽음을 고민하던 내 손을 잡아주고 도와준 광주일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에게 어린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한가지 있다. 친 부모를 만나 “날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태어난지 한달여 만인 1999년 5월 17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학동의 삼성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흰 보자기에 싸인 채 발견됐다고 한다. 자신이 발견된 장소와 ‘체격은 보통, 얼굴은 네모형’이라 적힌 아동카드가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다.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나타날 수 없다면 부모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부모를 만날 수만 있다면 건강히 잘 날아주신데 감사드리고, 이렇게 멋지게 자랐다는 걸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구속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문모(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광주시 북구의 한 건물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다. 문씨의 게임장은 그동안 10여 차례나 경찰에 신고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환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지사장 1명과 종업원 3명 등 4명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인 문씨를 구속기소했고 바지사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검찰, 인사 비리 의혹 보성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인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보성군청을 압수수색 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보성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총무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임 군수 시절 인사 비리와 관련한 고소사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용부 전 보성군수는 재임시절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광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첫날 108건 신고

광주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 총 10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확대 도입이 시작된 17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08건이다. 동구 7건, 서구 26건, 남구 7건, 북구 42건, 광산구 26건 등이다. 각 구경 담당자들은 신고 접수된 사진을 대조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신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주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내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치와 차종,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해 사진 2장 이상을 접수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달름	18:54
해질	19:08	달진	05:59

**나들이가기 좋은 주말**  
구름 많고 매우 건조하겠다.

광주	구름많음	12/22	보성	구름많음	8/18
목포	구름많음	10/18	순천	구름많음	12/19
여수	구름많음	13/16	영광	구름많음	9/19
나주	구름많음	9/22	진도	구름많음	9/18
완도	구름많음	11/19	전주	구름많음	12/22
구례	구름많음	9/20	군산	구름많음	11/19
강진	구름많음	10/20	남원	구름많음	10/20
해남	구름많음	8/20	흑산도	구름많음	10/16
장성	구름많음	9/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먼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먼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서부 먼바다(서)	동~남동 1.0~1.5	북동~동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13 19:33	01:56 14:18
여수	02:48 15:03	09:05 21:31

◇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	☁	☁	☁	☁	☁	☁
10/23	12/23	13/23	12/23	11/23	12/22	12/20

## 카랑카랑하구나~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가야금 병창



18일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펼쳐진 제64회 호남예술제 국악부문 경연에 참가한 진월초 박규리양 외 6명이 ‘꽃이 피었네’란 주제로 가야금 병창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강원 산불 구호물품 전달 박홍석 려기산업 회장은 18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칫솔세트 등 5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1667상자를 전달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공사비 부풀리고 입찰 담합 남부대 관계자 등 3명 기소

학교 공사 입찰 규모를 담합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 남부대학교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입찰 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77)씨 등 남부대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B(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 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

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도ल्ली 업체를 세워 학교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B씨의 건설사가 16억원에 낙찰받도록 했다. 또 타인명의로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공사비 2억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남부대학교를 감사하며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 희생자 19~20일 발인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사건으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이 19일과 20일 발인한다.

18일 유가족에 따르면 희생자 황모(74), 이모(58)씨와 최모(18)양은 19일 오전 8시 30분 함께 발인하기로 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김모(64)씨, 금모(11)양 유가족은 오는 20일 오전 7시에 따로 발인한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이날 부검했다. 부검을 마친 희생자들은 이날 오후

유족들의 오열 속에 입관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범인 안씨에 대한 신고가 10건 이상 있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 사람 조사를 해봐줬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며 “(각 부처나 기관의) 장들이 사건 현장을 다 봤지만 각자 얘기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가만히 놔둔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초등학교 급식 어린이용 수저 사용 광주 154개 학교 중 단 3곳에 불과

광주 초등학교 154곳 가운데 급식에서 어린이용 수저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상당수 학생은 젓가락을 쓰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밥을 먹거나, 젓가락이 커서 중간 부분을 잡고 ‘X’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하고 있다.

단체는 119개 병설 유치원 모두 전용 급식실 없이 초등학교 급식실을 함께 쓰는 문제도 지적했다.

단설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원아의 신체 기준이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단체는 만 3세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도 높이가 맞지 않는 의자를 사용하고, 성장 단계가 다른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생과 함께 고춧가루가 다량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단체 관계자는 “학교 급식예산에서 수저 구입에 쓰이는 예산은 극히 미미해 광주시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즉각 개선이 가능한 문제”라며 “초등학교와 함께 쓰는 병설유치원 급식시설도 가정 어린이집 형태로 필수 조리·위생·소독기구 등을 갖춰 조리사 1명이 운영한다면 최소 예산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에 당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에게 패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인천서 성범죄 후 도주한 40대, 광주서 배달음식 훔쳐먹다 벌금



○ 인천에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던 40대가 광주 화성동 일대에서 배달 음식을 훔쳐먹다가 경찰에 잡혔다.

○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원룸빌딩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배달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있던 총 15~20만원 상당의 치킨과 피자 등을 훔쳐 먹었다는 것.

○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입건한 뒤 인천 부형경찰서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